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2호 【루게 제25205호】 주제 105 (2016)년 3월 2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태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땀쳐입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매우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전제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70일전투의 철야전투에서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해 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태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공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 동지, 김정식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장 직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70일전투의 날과 날을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가고있는 태성기계공장 로동계급이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고 자신께서 늘 깊은 중시하고있는 태성기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들은 지난 수십년간 공장앞에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할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다녀가신 태성기계공장은 백두산철새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지휘와 기업관리의 정보화, 생산공정의 무인화,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최첨단측정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데 대한 문제, 공장의 종업원들과 기술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세계기계제작공업발전추세를 앞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립데 대한 문제, 공장로동계급이 최고의 문명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건설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성기계공장을 돌아보시며 우리 당 제7차대회에 총정의 전투기록장을 가지고 몇몇이 들어서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투쟁하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열, 투쟁열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로동계급들과 함께라면 절망 못할 요소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성기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공장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완전히 일신시키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현대적인 기계제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것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태성기계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로동계급들은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뜨거운 은덕을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중앙이 맡겨준 전투임무를 결사관철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고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펼쳐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지도속에 우리 나라 군지의 기계제작기지로 조성강화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신된 사적자료를 주의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일터 세워주신 태성기계공장에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기록한 발자취가 곳곳마다에 어리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시면서 장군님께서 태성기계공장을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의 제1선에 서있는 공장이라고 내세워주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이곳에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기시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정말 잘 꾸리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공장로동계급이 자기들이 어떤 일터에서 일하는가를 실감깊이 간직하고 높은 생산성과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 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품질가공직장, 조립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완성된 기계제품들의 성능과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맡아들공장, 선각자 공장, 핵심공장인 태성기계공장이 부강조국 건설에서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지식경제의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성기계공장의 생산 및 기술관리공정을 전문보양형이 아니라 개발장조형으로 전면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온것은 공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제작공업발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자는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성기계공장을 세계적인 최첨단기계제작기지로 만들자는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공장현대화사업을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발전의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으로, 전략적인 문제로 보고 대책을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성기계공장을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결심이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결심,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가장 정당한 결심이었다는것이 증명될수 있도록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현대화사업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 설

당 제 7 차 대 회 가 열 리 는 올 해 에 산 림 복 구 전 투 에 서 새 로 운 전 환 을 일 으 키 자

오늘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뜻깊은 날인 식수절을 맞이하고있다.

식수절은 조국강산을 만복의 터전,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헌생을 길이 전하여주는 의의깊은 날이며 당의 현대화 구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서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애국열의를 파시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산과 들에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참화로 상처입은 조국산천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그 후 파를 가시기 위한 대자연계조전투를 헌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국토건설업적과 온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함에 대한 구상을 펼쳐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높고 힘찬 행진 길을 걸고 또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이 깃들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실배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에 의하여 오늘 산림부에서는 전변의 새 역사를 창조되고있다.

식수절을 맞이한 전제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과 청년학생들은 전제 위인들의 온몸이 어려있는 이 땅의 귀중함, 이 땅의 주인된 자각을 더욱 깊이 새기고있으며 올해의 산림복구전투에 한걸음이 떨쳐나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갈 불같은 맹세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연이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것은 인민들의 삶의 터전과 행복한 생활을 담보하고 후대들과 조국의 만년대계를 위한 애국위업이다. 혁명의 면모를 내다보며 미래를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참된 혁명가의 자세,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의 자세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뚜렷이 검증된다.

당령의 명도따라 자연과의 전쟁, 산림복구전투에 펼쳐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파고파고 뚫고 군민대단결의 위력, 자강의 의지, 힘으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중앙과 도, 시, 군을 비롯한 수많은 기관, 기업소, 학교와 마을, 전선장들에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장인 양묘장들이 마련되고 여기에 실 힘으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중앙과 도, 시, 군을 비롯한 수많은 기관, 기업소, 학교와 마을, 전선장들에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장인 양묘장들이 마련되고 여기에 실 힘으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산림복구전투를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 일군들과 청년학생들의 마음속에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새싹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거름이 역세게 자라나고 당의 요구라면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당정책집행관들의 기상이 새차게 분출된것은 대없는 자랑이다.

지금까지 산림조성사업에서 우리

가 지은 성과는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조성해야 할 산림면적은 이미 한것에 비해 더욱 방대하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도 미루실수 없는 중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렴을 위하여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와 열의 할 운명적인 사업이다.

올해의 불철나무심기가 시작되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에서 일심단결의 위력,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력, 애국의 열정을 더 높이 떨칠 자신만만한 태평을 가지고 나무심기와 보호관리사업에 한 걸음이 앞당겨져야 한다.

오늘의 나무심기는 70일전투기 특장에 애국충정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나가는 영예롭고도 보람찬 애국사업이다.

당 제 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의 활약장에서 보시각은 애국의 마음은 비길대없이 소중하다. 시련과 난관앞에서 추호도 동요하지 않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 세천자들로 영예 떨치고 자력자강으로 자기부담, 자기 단위를 꾸쳐세우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에서 절대적 승리를 쟁취하는 당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산림의 주인이라는 숭고한 자각, 당령 제 7차대회를 애국의 위훈으로 맞이 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산림복구전투에 나서라. 다면적에서 이어나 나라는 흥청거리고 이상사이어야 한다. 전국의 도, 시, 군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 학교와 마을 그 어디에서나 나무심기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군총적운동으로 나무를 심을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심어야 한다. 누구나 우리 조국이 최후승리의 명마루에 올랐다고있는 오늘날의 격동적인 시대에 온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하는데 애국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야 한다.

나무모양은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

에 만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 나 같다. 지난해 대관군과 평원군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시, 군들에서 이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때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렴을 위하여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와 열의 할 운명적인 사업이다.

오늘의 산림복구전투에서 일대 양묘장을 위하여 애국의 위훈으로 맞이 하겠다는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산림복구전투에 나서라. 다면적에서 이어나 나라는 흥청거리고 이상사이어야 한다. 전국의 도, 시, 군들과 모든 기관, 기업소, 학교와 마을 그 어디에서나 나무심기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군총적운동으로 나무를 심을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심어야 한다. 누구나 우리 조국이 최후승리의 명마루에 올랐다고있는 오늘날의 격동적인 시대에 온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하는데 애국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야 한다.

나무모양은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누가 보

전날던 이 땅에 전진을 묻으려는 순결한 마음, 자기가 심은 나무는 먼 후날에도 꽃까지 책임지겠다는 승고한 사랑감을 안고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산림부는 일군들은 나

무심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심어야 할 나무의 생물학적특성을 비롯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그들이 한그루의 나무도 과학기술적으로 맞게 심도록 하여야 한다. 심은 다음에도 물주기, 갈대기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잘하면서 정성껏 가꾸어야 한다. 각종 양묘장들과 일군들은 심은 나무들의 사용률을 높고 산림복구전투의 성과여부를 정확히 총화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함께 산림보호관리체 각별한 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심은 한그루한그루의 나무가 지실같이 뿌리내리고 자라도록 하라 조국의 귀중한 재부가 되게 하라 산림보호관리체 응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산림보호관리는 한두사람만으로는 할수 없으며 대가 자신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산림보호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산림보호관리는 한두사람만으로는 할수 없으며 대가 자신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산림보호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 지난해 경계시, 승원군을 비롯하여 나무심기를 잘한 단위들의 경험은 한그루의 나무모도 자기 살림이처럼 애지중지 키우며 정성들여 키워야 사용률을 질적으로 높일수 있다. 산물이 나면 귀중한 산림자원을 순간에 제머리 만들게 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산불감시와 통보, 군중통제체계를 비롯한 산불막이대책을 정연하게 세워놓아 각종 피해로부터 산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산림복구전투에 필요한 설비, 물

자,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당에서 산림복구전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선포한것만큼 산림복구전투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은 전쟁물자와 같다. 해당 부문, 해당 단위들에서는 비료와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많은 자재보장계획을 무조건 집행하여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담보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중으로 도들의 심은 나무들의 사용률을 높고 산림복구전투의 성과여부를 정확히 총화하여야 한다.

산림복구전투의 성과여부는 각 지휘부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모든 지휘부들에서는 장기성을 띠는 산림복구사업의 특성에 맞게 산림의 현실과 지대적특성, 현실적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전방계획과 단계별계획, 년차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 지휘부일군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통제수사나 따지고 일방적인 강요나 하대해 그렇것이 아니라 인민군대지휘관처럼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직접하여 지휘를 헌명적으로 해나가는 기마수가 되어야 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 산림조성구역을 정확히 정해주고 심은 나무는 그 단위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산림복구전투는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모두다 《전망,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에 펼쳐나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산림복구전투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자.

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회를 하였다.

보고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애국위업을 높이 받들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온 나라를 수렴화, 원림화, 파수원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자받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식수절 7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중정의 70일전투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효율을 창조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식수절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이하여 온 나라 천만군민은 조국강산을 로동당시대의 글수강산으로 꾸러시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헌정성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으며 이 땅위에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헌생을 길이 전하여주는 의의깊은 날이며 당의 현대화 구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황금산의 새 역사를 창조되고있다.

식수절 7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장성군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양철성동지와 김수경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

들, 시인의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이날을 맞이하여 온 나라 천만군민은 조국강산을 로동당시대의 글수강산으로 꾸러시기 위하여 애국헌신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헌정성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으며 이 땅위에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푸른 숲이 우거진 인민의 락원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헌생을 길이 전하여주는 의의깊은 날이며 당의 현대화 구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황금산의 새 역사를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프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슬금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전제없는 세멘트생산선과로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프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슬금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전제없는 세멘트생산선과로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양철성동지와 김수경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

들, 시인의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령

제988호 주체105(2016)년 2월 26일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당의 명도따라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대가넘비적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10년을 1년으로 주물잡으며 건설의 대변영가이 펼쳐지는 우리의 자랑찬 투쟁행로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우리의 조국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진 뜻깊은 지난해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조국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우리의 조국역사에 길이 아로새겨진 뜻깊은 지난해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조국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양철성동지와 김수경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

들, 시인의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로력영웅칭호 2명	판산 라제1직장 조종사	서동명 소대장	김영환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삼형판산 3형 공장
김영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세멘트직장 작업반장	공훈기술자칭호 1명	국기훈장 제1급	16명
림봉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소성직장 작업반장	서신영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상원석회석 판산 부기사장	로력훈장	21명
김정일청년영예상 3명	공훈광부칭호 1명	국기훈장 제2급	296명
조선국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삼정판산 1형 굴진공	윤일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상원석회석 판산 제4직장 소대장	국기훈장 제3급	451명
박성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화원판방 제명정 굴진공	공훈탄부칭호 2명	공로메달	501명
박현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상원석회석	리근영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화원판방	계	1 294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령

제988호 주체105(2016)년 2월 26일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